

문화콘텐츠에 재현된 집단 기억의 문화기호학적 의미 연구

태지호*

【 차 례 】

- I. 들어가는 글
- II. 집단 기억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집단 기억의 활용 영역들
- IV. 문화기호학적 체계 속에서 집단 기억을 맥락화하기
- V. 나오는 글 : 차가운 기억을 위하여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집단 기억이 어떻게 구현되고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집단 기억과 정체성과의 관계, 문화적 재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집단 기억의 활용 양상에 대해서 공간형 콘텐츠와 영상콘텐츠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는 기억 산업의 형태로 나타나며, 다양한 의미 작용의 모습을 지닌다. 동시에 문화콘텐츠는 집단 기억의 경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 속에서,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재현된 집단 기억의 모습을 뜨거운 기억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차가운 기억을 제안하였다. 차가운 기억은 기억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 대상과 기억 주체라는 이분법에 함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열쇠어 : 집단 기억, 문화콘텐츠, 재현, 문화기호학, 정체성

* 안동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I. 들어가는 글

기억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 기억이란 과거의 인상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거나 간직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는 ‘기억력’과 같은 관점에서 단지 생물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개인일지라도 각 개인들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그에 따른 정체성을 획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과거는 선택적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라는 현실은 왜곡, 변형, 삭제 등의 재구성을 통한 기억의 사회적 실천 과정에 의해 특별한 방식과 모습을 가진 새로운 의미 체계 영역으로 편입된다.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집단 기억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기억 행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간파하고 이를 최초로 이론화한 학자이다. 알박스는 “모든 사회의 사상이나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기억이며, 그 모든 내용들은 집단 기억이거나 회상의 영역에 있다.”¹⁾고 하면서 집단 기억 개념을 통해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근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사회적 상황, 사회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틀로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의 여러 분야에서는 과거를 소재로 하여 대중적 흥행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거가 대중들의 집단적 소비의 소재이자 상품이 되는 특별한 방식의 대중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례로 보면, 이들 영역은 사극, 역사 영화, 복고 문화, 향수 문화, 박

1) Halbwachs, M., *La topographie légendaire des évangiles en terre sainte: Etude de mémoire collective; Les cadres sociaux de la mémoire*, Coser, L. A. (Trans.), *On Collective Mem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Original work published 1941, 1952), p.189.

물관, 전시회, 축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거의 소비는 과거를 고증, 해석, 전파하여 현재화하는 방법이며, 그 일련의 과정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의 여러 분야는 대중들에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주목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인물, 사건, 상황 등)에 대한 여러 맥락이 존재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개인들의 상이한 이해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문화콘텐츠들은 그러한 해석을 어렵게 한다. 이는 문화콘텐츠가 문화경제학 혹은 문화산업의 관점 속에서 경제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생산 및 소비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서두에서 제시한 집단 기억의 개념과 연관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을 공유케 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집단 기억과 문화콘텐츠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그간 역사학, 철학, 사회학, 미디어 연구, 문화 연구 등과 같은 영역에서 적지 않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단일한 텍스트인 특정한 문화콘텐츠를 분석하고 그것의 재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그러한 논의들도 과거를 둘러싼 현재의 모습들을 해석하기 위해 기억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또한 기억 개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억 문화 연구의 성과들이기도 하다. 본 논문 또한 이러한 문제 의식들을 공유하지만, 그러한 논의들을 종합함과 동시에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문화기호학적인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와 집단 기억의 메커니즘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루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논의의 차원에서 집단 기억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집

단 기억은 기억의 사회성에 대해 최초로 이론화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문화적 기억, 사회적 기억, 대중 기억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 및 계승되어 왔다. 이후 집단 기억의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공간형 콘텐츠, 영상콘텐츠의 제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집단 기억 개념의 활용에 대해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그것이 내포하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집단 기억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집단 기억은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기억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이라 함은 집단이라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주체들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기억은 이러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뜻한다. 하지만 집단 기억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는 과거에 대한 모든 사실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집단 기억은 개인 기억의 총합이 아니라, 개인들이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억에 더욱 가깝다. 이렇게 보면 집단 기억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매개되는 과거에 대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집단 기억을 개념화 한 알박스는 집단 기억이 개인들의 회상을 보증해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개인 기억은 파편적일 뿐 만 아니라 불완전하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기억이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²⁾ 즉 집단 기억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게끔 한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수반한다. 그 첫 번째는 집단 기억이 정체성의 형성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이 주체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물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각 개인은 정체성에 대

2) Halbwachs, M., 앞의 책, p.38.

한 참조 지점을 집단 기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타자’에 대한 체험과 이를 통한 주체의 능동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타자를 전유함으로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집단 기억은 각 개인들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궤적들을 설명하고 조건지을 수 있는 의미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집단 기억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과 재구성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정체성 또한 단수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정체성들’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집단 기억의 (재)구성 과정은 특별히 기억해야만 하는 과거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집단 기억은 망각 과정을 반드시 수반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기억 과정은 과거를 모두 현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회적 실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망각은 (집단)기억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억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집단 기억이 문화적 재현의 과정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집단 기억이 집단성 혹은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형식을 통해 매개되어야 한다. 여기서 형식은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인 미디어를 뜻한다. 이는 미디어의 역사적 변화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인쇄 출판 미디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전자 영상 미디어, 최근의 인터넷 등과 같은 뉴미디어 등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구획된 공간이나 장소, 거리 등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해 매개되는 집단 기억은 최근 문화콘텐츠로 불리는 영화, 방송콘텐츠, 출판물, 박물관, 전시회, 축제, 문화 공간(거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집단 기억의 문화적 실천에 대해서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레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부부는 문화적 기억으로,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경우 ‘기억의 터’라는 메타포를 통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좀 더 정치

3)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72~73쪽.

적인 실천의 맥락에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 대중 기억 연구회(Popular Memory Group)는 대중 기억을 통해 이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들은 기억이 존재하는 형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면서, 기억이 어떻게 사회의 특별한 인식의 형태로 작동하며, 그에 따른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억의 재현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실제 기억의 재현을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매체들은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생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의미 생성 메커니즘은 단지 매체의 물리적인 속성이나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표현 방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매체들 해당 매체의 (생산 및 소비를 포함한)활용 관습과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 그리고 매체의 시대적 가치(역사성) 등에 따른 다양한 의미 생성 방법을 통해 기억을 재현한다. 이렇게 보면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짚고 넘어가야 할 논의이겠지만, 어떻게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기억 개념을 통한 당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집단 기억 개념을 결정론적 시각에서 다루는 관점의 한계를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사회적 추동력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성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집단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며, 특히 이미 지나간 과거를 매개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단초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논의는 역사(화) 혹은 역사의 (재)해석과 같은 메타 내러티브를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그러한 연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진리 효과의 개념에 대해 다소 미시적 관점에서 수정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Ⅲ. 집단 기억의 활용 영역들

집단 기억이 재현되는 문화콘텐츠의 범위는 매우 넓다. 기억술 혹은 기억 매체의 관점에서 과거라는 정보는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저장되고 전달된다. 집단 기억은 그러한 매체들 각각의 속성에 의해서 (재)구성되며, 그에 따른 특별한 문화적 실천을 수반한다. 따라서 매체에 따른 집단 기억의 모습들은 현재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매체미학적, 문화(콘텐츠)산업적, 역사적 그리고 기술공학적 관점에 의해 개별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적 재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이것을 통해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문화콘텐츠라는 개념 속에서 효과 중심 혹은 제도적 혹은 산업적 차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본 장에서는 이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이를 당대의 대중들이 공유하는 감정 구조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석적 논의로서 진행하고자 한다.

1. 공간형 콘텐츠 : 집단 기억의 실제 경험

공간형 콘텐츠는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공간’이라는 미디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을 뜻한다.⁴⁾ 공간형 콘텐츠의 경험은 특정한 방식으로 구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문화적 결과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진다. 집단 기억과 연관하여, 언급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형 콘텐츠는 박물관과 축제이다.

우선 박물관은 그 정의 및 설립 목적에서부터 집단 기억 개념이 주된 모티브가 된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인류의 유무형적 자원들에 대한 수

4) 태지호, 『공간형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0쪽.

집과 보존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 특정한 대상들이 선별된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방식의 기억과 망각 작용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대의 박물관의 모습이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궤를 같이 하였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박물관은 해당 국가 및 시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박물관은 그간 박물관이 강조하였던 근대성, 공공성, 문화시민 등과 같은 가치와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의 환경 하에서 대중들에게 유희성 및 편의성 등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최근의 박물관은 그간 강조하였던 엄숙하고, 경건한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좀 더 ‘재미있고’, ‘안락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전시’는 다른 여타의 문화콘텐츠와 구별되는 박물관만의 특성인데, 기존에는 해당 과거를 직접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해당 집단 기억에 대한 확실성과 향시성을 부여하였다.⁵⁾ 이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나 기술 그리고 체험 전시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로서 박물관에 대한 문화적 소비는 ‘다크 투어리즘’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블랙(black) 투어리즘 혹은 그리프(grief) 투어리즘이라고도 불리는데,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의 학살이나 재앙 등과 같은 장소를 ‘관광’의 관점에서 방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많은 다크 투어리즘의 경우,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념관, 기념 공원, 전시관 등에 대한 방문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해당 과거에 대한 관광 상품의 소비를 통해 특별한 집단 기억을 내재화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간형 콘텐츠의 또 다른 유형인 축제 또한 박물관의 문화적 실천과

5) 태지호, 「<독립기념관>에 나타난 ‘독립’의 기억과 그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25호, 2013, 156쪽.

유사한 사례로서 설명될 수 있다. 축제는 해당 공동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기념하는 일종의 제의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축제를 통해 특별한 기억을 내재화할 뿐 만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집단적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 최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 더해 축제는 지역 문화 산업의 한 영역이자, 지역의 브랜드 및 마케팅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최근 지자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여러 축제들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 설화, 인물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제시된다. 이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을 활용하여 현대적 이벤트가 개최되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집단적 경험을 통해 해당 지역은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한다. 축제는 그 속성상,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집단적 경험이 우선시되는 문화콘텐츠이며, 그에 따른 집단적 연대감과 집단적 참여를 강조한다. 축제 참여자들은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 현실의 전복과 일탈을 경험한다. 그러한 집단적 경험은 집단 기억의 공유가 전제되는 것이며, 이는 지자체라는 행정 조직과 경험재라는 경제적 가치에 의해 제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만들어진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컨대, 공간형 콘텐츠라 불리는 문화적 재현들은 오랫동안 인류가 활용하여 온 집단 기억의 재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논의에서와 같이, 최근 들어와 이들의 구성 전략과 의미 전달 방식 등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적, 경제적 효과를 위해 집단 기억을 활용함은 분명하다. 덧붙여, 이들 공간형 콘텐츠는 물리적인 실재를 통해 집단 기억을 경험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간형 콘텐츠는 집단 기억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해주며, 대중들은 해당 공간 혹은 장소에서 집단 기억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영상콘텐츠 : 이미지로 소구되는 집단 기억

영상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시각에 소구하는 전자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적 생산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영화와 방송콘텐츠가 주로 언급되지만, 이외에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콘텐츠의 일부가 포함된다. 영상콘텐츠는 영상미디어를 통해 특별한 시각성을 가지는 집단 기억을 재현한다. 이들은 다양한 ‘이미지화’ 전략을 통해 집단 기억을 구체화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지들의 결합 양상이다. 이는 특히 다양한 장르들과 연관하여, 영상콘텐츠에 의해 재현된 집단 기억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특징인 몽타주 기억과 연관된다.⁶⁾ 몽타주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영상콘텐츠는 영상이라는 특별한 물질적 실체를 통해 단지 이미지의 배열 뿐 만 아니라, 의미의 전유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집단 기억이 재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우선 영화의 경우, 최근의 흥행작들의 다수는 과거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물론 여기에는 전통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과거의 이야기들도 여럿 존재하지만 최근의 경향성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상업적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들 영화들이 다루는 기억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거나 그에 대한 특정한 시점 혹은 인물들에 관한 것이다. ‘근현대사’라는 특성상 아직 현재 진행형인 과거이거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문제가 분분하기 때문에 일부 영화들의 경우,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영화는 물론이지만, 대중들에 의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았던 영화일지라도 이들 영화들에 의해 과거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집단 기억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푸코의 대중기억에 관한 논의에서와 같이, 대중들은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과거에 대해 기억하

6) 태지호, 「텔레비전 다큐멘타리를 통한 사회적 기억 제도로서의 영상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권 4호, 2012, 460쪽.

는 방식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과거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⁷⁾ 이들 영화들은 과거를 그리움과 연민의 대상으로서 기억하는 방식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는 탈맥락화되고 영화라는 판타지 속에서 물신화된다.

방송콘텐츠도 이와 유사한 맥락 속에서 유행하고 있다. 최근 대중적으로 성공한 드라마들의 경우, 그 재현의 강조점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보여주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향수 기억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과거에 대한 스펙트럼을 폭넓게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대한 정경이 매우 좁은 시각으로 특수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들 드라마를 통해 망각되는 해당 과거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과 연관하여 보면, 드라마들이 보여주는 과거는 방송 매체를 통한 집단 경험에 의한 집단 기억의 강요가 된다.

이와 달리 방송콘텐츠의 또 다른 장르 중 하나인 (시사/교양)다큐멘터리의 경우, 그 집단 기억은 ‘기념 기억’을 통해 구체화된다. 기념은 공적인 차원에서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기억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상징적인 주기와 기념 공간 및 장소 등의 문제가 기념 기억에서는 강조되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암묵적인 동조를 수반토록 한다. 최근 시기는 한국 근현대사와 연관한 사건들에 대한 특정한 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다큐멘터리들은 이러한 과거를 다름으로서 해당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방송 다큐멘터리는 그 장르적 특성 상, 대중들의 인식은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기반 및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 기대어 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통한 과거의 재현은 공적 기억이자 지배 기억으로서의 집단 기억을 구성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7) Foucault, M., Film and Popular Memory, *Radical Philosophy*, Vol.5, No.11, 1975, pp. 24-29.

IV. 문화기호학적 체계 속에서 집단 기억을 맥락화하기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집단 기억은 과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념과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해준다. 집단 기억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의 요구와 대응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다. 이러한 집단 기억의 양상에 대해서 슈워츠(Schwartz, B.)는 문화 체계로서 집단 기억을 논의하였다. 이는 집단 기억에 관한 두 가지 모델의 제시로 구체화된다. 그 첫 번째로 집단 기억은 사회의 요구, 문제, 두려움, 사고 방식 그리고 열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모델이다. 두 번째로 집단 기억은 사회의 경험들을 정의하고, 그 가치들과 목적들을 분명히 하며,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지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사회를 위한 모델이다.⁸⁾ 본 장은 이러한 논의를 방법론적 틀로 활용하여 현재의 문화콘텐츠 양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집단 기억이 과거에 대한 당대의 상징이나 표현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실천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의 지표나 척도(barometer)의 측면은 어떠한가에 대해 맥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텍스트로서 앞서 언급한 문화콘텐츠의 제 영역들의 양상과 더불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기호학적 체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1. 기억 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

집단 기억이 과거를 현재화하는 방식으로 문제적이고 성찰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인식론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는 일상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기도 하다. 문화콘텐

8) Schwartz, B.,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braham Lincoln in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1, No.5, 1996, p.910.

츠의 생산 및 소비의 양식이자 그 방법 혹은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볼 때, 집단 기억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 기억의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기억 산업이라 할 만큼, 해당 문화콘텐츠의 영역의 생산 및 소비의 관습 내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각 장르의 경계를 넘어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련의 현상은 ‘복고 문화’의 범주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복고 문화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문화콘텐츠의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그 외의 문화콘텐츠와 유관한 다양한 일상 문화 속에서도 나타난다. 일종의 기억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복고 문화 열풍은 집단 기억을 상품 경제의 틀 속에 위치시킴으로서 과거를 물신화시키고 있다. 현재 어느 특정 문화콘텐츠가 집단 기억을 활용하여 흥행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관련 상품들이 (재)생산되고 소비된다. 영화, 및 드라마 내의 소품, 배경음악, 음식, 패션, 그리고 해당 이야기의 배경 공간 등은 의도되었던 혹은 그렇지 않던 간에 OSMU(One Source Multi Use)로서 파생되어 유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종 음악 프로그램은 과거에 유행하였던 음악을 리메이크하여 방송하기도 하며,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놀이 문화 공간 등도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기억의 소비 혹은 기억 산업으로서 복고 문화는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맥락 속에서 볼 때, 문화적 퇴행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조건이 창의/창조성이라면 현재의 복고 문화는 ‘퇴행적 창조’라 할 수 있다. 이는 온고지신(溫故知新)도 아니며,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그 스타일만을 전유하는 일종의 ‘피상적 기억(sketchy memory)’이다. 물론 이는 개개인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일환이자 일상 속에 개인들의 과거에 대한 체험이 다시금 현재화된다는 점에서 자기 향유, 그리고 이를 통한 세대 간의 소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익숙함’과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소유 욕망’이 지배적이며, 동시에 그 진행 과정은 마치 ‘대중적 기념’이라 할 만큼 규칙적이고, 관습화되고, 제의적인 과거 찬양으로 나타난다. 실제 이러한 복고 문화 현상에는 과거에 대한 ‘낯설게 보기’와 같은 시도도 거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식화 혹은 의례화 된 소비 패턴만이 지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전 보다 매체가 훨씬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은 획일화된 모습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복고 문화의 열풍은 성찰적이거나 자기반성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단지 과거를 그리워함으로서 현재의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주변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극단적 폭력이나 전쟁 경험과 같은 사건에 대한 상흔으로서 트라우마를 재현한 문화콘텐츠의 소비 현상 또한 동일한 차원에서 문제시될 수 있다. 특히 박물관이나 다크 투어리즘 그리고 여러 기념 재현들과 같은 일련의 형식적이고 관습화된 트라우마의 현재화가 그러하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나 아도르노(Theodor Adorno)같은 학자들은 참혹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러한 재현은 과거의 희생들에 대한 숭고함을 가장한 거짓 위안이며, 그 속에서 사회적 갈등과 모순들은 은폐된다고 하였다.⁹⁾ 물론 일상의 소비에서 성찰과 같은 진지한 자기 고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일상적이고,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힘의 논리들은 거시적인 사회 구조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침투력이 강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는 그러한 재현들에 대해 상징적 전치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공감에 결여된 트라우마에 대한 부정적 승화 혹은 순화는 반복적

9) Adorno, T. W., *Asthetische Theorie*, 1970, 홍승용 옮김,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308쪽.; Olick, J. K., *The Politics of Regret*, 2007, 강경이 옮김,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242쪽.

이면서도 정형화된 형태로 과거를 재현할 뿐 이다. 라카프라의 관점으로 보면, 현재의 문화콘텐츠에서 드러내고 있는 집단 기억은 오히려 처절했던 과거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회적 기제일 뿐이다.¹⁰⁾ 이러한 논의들이 시사하는 것은 기억 산업과 같이 제도화되고, 행정적이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탈맥락화되어 과거가 대상화될 때 제기되는 문화적 획일화와 더불어 과거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대한 우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집단 기억의 문화적 (재)생산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문화가 상이한 담론들이 공존하는 자율적 영역이라는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단 기억의 의미 작용은 어떠한지와 더불어, 기억 행위 혹은 기억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본래적 특질은 무엇인지와 연관하여 다뤄질 필요가 있다.

2. 집단 기억의 의미작용과 그 변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콘텐츠의 제 영역들에서 집단 기억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은 집단 기억이 다양한 기호들의 집합체인 문화콘텐츠를 조직하는 원리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의 상이한 문화적 체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기억이 과거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문화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문화란 개인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의미 부여가 아닌, 보편적이고 관습적인 체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집단 기억은 다양한 기억들과 비교하여 그러한 문화적 위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과거에 대한 인식의 맥락적 차원에서 작동되는 일종의 규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10) Lacapra, D.,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23~4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리 로트만(Yuri M. Lotman)은 집단의 비유전적 기억이 금지와 제한들의 일정한 체계로서 문화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집단 기억으로서의 문화는 기호학적 규범 체계에 관한 문제를 수반하고, 이것이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삶의 경험들이 그 안에 녹아들게 된다.¹¹⁾ 문화로서 집단 기억이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문화콘텐츠로 구성될 때, 그 의미 작용은 망각과 쌓을 이루며 진행된다. 문화 체계로서 집단 기억의 의미 구성은 집단의 기억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망각을 통해 삭제한다. 즉 망각되는 것은 집단 기억의 관점에서 비문화인 것이며, 이는 집단 기억과 대립되어 명시되지 않는다. 동시에 문화로서의 집단 기억은 계속해서 계열체들을 생산함으로서 집단 기억의 위계를 드러낸다. 공식 기억, 지배 기억 등은 집단 기억의 특정한 형태로서 공식 문화, 지배 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사적 기억, 대항 기억 등은 문화가 아닌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한편 집단 기억이 문화 체계의 기저를 이룬다고 전제하면, 집단 기억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화 코드로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생성하는 토대가 된다고 이해 될 수 있다.¹²⁾ 즉 집단 기억은 문화가 고유의 의미를 갖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코드로서, 사회적 관습으로서 역사성과 문화성을 함축하게 된다.¹³⁾ 문화 코드로서 집단 기억은 문화콘텐츠라는 다양한 기호들의 집합체에 대한 의미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이 된다. 여기에는 집단 기억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내는 단위인 ‘기억소’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서사로 구성되어 과거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지역 축제이다. 축제는 지역문화의 전승 및 보존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의 집단 기억을 동원하여 지역 경제

11) Lotman, Y. M., *Семносфера* 2000, 김수환 옮김, 『기호계』, 문학과지성사, 2008, 68~69쪽.

12) Rapaille, C, *The Culture Cord*, 2006, 김상철·김정수 옮김, 『컬처코드』, 리더스북, 2007, 18쪽.

13) 김운찬, 『현대 기호학과 문화 분석』, 열린책들, 2005, 52쪽.

의 활성화를 꾀하는 문화콘텐츠이다. 축제는 그 기획의 컨셉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기억소를 활용한다. 이는 지역만의 서사를 위한 모티브가 되며, 구체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지역 내외민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제는 지역 내의 결속 및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제 여러 문화콘텐츠의 영역들은 그것이 재현하는 과거가 무엇이건 간에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흥행하였던 여러 집단 기억의 문화콘텐츠는 사랑과 우정 혹은 아름다운 추억 등과 같은 보편적인 코드를 활용한 메시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이는 담화 혹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회상하기’라는 서술 방법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회상하기는 ‘플래시 백(flashback)’과 같은 편집 방법이나 반역광(半逆光) 및 파스텔 톤의 조명 등의 빈번한 사용 등을 통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영화나 방송콘텐츠의 드라마와 같은 영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결국 문화 코드에 의해 규범화 된 문화콘텐츠들은 장르로서 여겨질 만한 서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향수 영화’ 혹은 ‘향수 드라마’로서 과거를 대상화하는 방식이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영상 산업적 관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문화콘텐츠를 통한 일종의 호명이며, 대중들은 문화콘텐츠가 제시하는 여러 장치와 전략들을 통해 기억해야 할 과거는 어떠하며,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인지하게 되는 대중들의 소비 실천과 연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집단 기억의 의미 작용은 문화적 체계에 의해 문화 코드로 이해되어 문화콘텐츠가 재현하는 과거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만 읽히게 된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화콘텐츠의 그러한 내적 속성들이 묘사하는 방식들 자체가 현실의 관계를 표명해주는 것이자, 특히 개인들의 삶의 의미 부여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코드의 개념과 연관하여, 집단 기억의 의미 작용은 이 보다는 좀 더

열려있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코드는 서로 연관된 영역들이자, 특정한 구조 관념을 가능케 하는 표시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규칙들의 총체라는 점을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¹⁴⁾ 바르트(Barthes, R)는 의미 작용의 단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텍스트는 코드들이 교차하는 입체적 공간으로서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¹⁵⁾ 텍스트는 여러 코드들이 직조되어 있는 개념일 뿐 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체하는 것은 해석 주체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집단 기억은 단일한 문화 코드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양한 기억들과 융합 및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코드들이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집단 기억은 단순화된 과거에 대한 해석이 아니며, 구조화된 재현의 원리를 거부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는 수적인 개념으로서 기억들의 총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기억 자체가 단일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화 되는 방식과 그에 따른 해석의 자율성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 기억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의해 특정한 방식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어야 한다. 집단 기억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관념이나 개인들의 체험과는 관계가 없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현재적 의미를 생산하기 위한 각 개인들에 의한 인식의 대상인 것이다. 집단 기억은 닫힌 형식이 아니라, 여러 기억들에 의해 의미화 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 기억의 의미 작용은 과거를 둘러싼 인식의 한 종류로서, 집단 기억을 담지하고 있는 해당 문화콘텐츠 자체의 의미와 더불어 다른 문화콘텐츠 및 다양한 해석자들인 대중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14) Tambling, J., *Narrative and Ideology*. 1991, 이호 옮김, 『서사학과 이데올로기』, 예림기획, 2000, 53쪽.

15) Barthes, R., *S/Z*, 1970, 김웅권 옮김, 『S/Z』, 동문선, 2006.

3. 기억들의 경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가 매체에 체화되어 구체적으로 가공된 무형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이는 그 자체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된다. 본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더해, 문화콘텐츠의 집단 기억 활용이 다양한 기억들의 경합과 소통의 창구가 된다는 것이다. 집단 기억은 지배 기억으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들의 기억이자 사회적 기억들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에 의해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단수’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한 ‘복수’의 기억들로 재현되고 있다. 복고 문화 역시 그러한 단수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사실’은 총체적인 문화의 개념과 연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실은 기호학적 공간을 부유하며 문화적 코드들이 바뀔 때, 그 속에서 융해되어 의미를 생성하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기억은 객관적인 과거를 담고 있는 개념이 아니며, 사회의 여러 계층들에 의해 전유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재)구성된다.

특히 최근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근래의 집단 기억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복고 문화 뿐 만이 아니라, 도시 행정, 지역 개발 및 계획 등과 같은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도시, 문화도시 등과 관련한 장소나 건축물 등의 보존과 활용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실제 장소나 건물 혹은 특정 공간에 대한 집단 기억의 ‘행정적 활용’은 기억의 투쟁이나 기억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장소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억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실체이며, 현재 진행 중인 기억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

16) Lotman, Y. M.,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1990, 유재천 옮김, 『문화기호학』, 문예출판사, 1998, 320쪽.

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근현대의 장소일 경우, 그러한 기억들의 주체들이 해당 과거를 직접 겪은 세대들인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동시대적 맥락에 따라 그들의 해당 과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러한 해석은 국내적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 위안부에 대한 인식 및 보상 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도 기억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집단 기억을 활용하는 문화콘텐츠는 민족주의, 국수주의, 문화제국주의, 국가주의 등과 같은 거대 담론의 맥락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읽혀져야 하는 대상이 된다.

결국 기억 그 자체의 내용 보다는, 기억의 활용과 재현이 문화학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련의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체계들에 의한 이해관계가 작동하여 특정한 과거가 부각되기도 하고, 동시에 집단 기억 또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 기억의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가 문화적 기억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화적 기억으로서 문화콘텐츠는 동일한 과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른 기억에 의해서 도전받으며, 동시에 생산된다. 여러 문화콘텐츠를 둘러싼 담론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무관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억의 재현을 특정한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집단 기억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경합과 소통의 과정과 결부되어, 우리 사회의 ‘감정구조’로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억은 순수한 개념이 아니라, 기억 행위 자체가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올릭(Jeffrey K. Olick)이 논의한 기억 실천들(mnemonic practices)와 연관된다. 기억 실천들이란 기억의 실천이 항상 다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억 개념에 대해 본질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¹⁷⁾ 즉 지속적인 기억의 경합과 소통의 모습은 기억이

유동적인 개념임을 일깨워준다. 물론 다양한 기억들끼리는 물론이고 그러한 기억들의 재현들 또한 상호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억과 기억의 재현은 본래의 의도와 모습에서 왜곡되거나 지배 기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시 다발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그 자체가 또 다른 기억을 구성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일종의 ‘기억 환영’이라 할 만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과거라 할 지라도 실제 체험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종의 ‘의사 기억(pseudo-memory)’이 생기기도 하고, 그 자체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호 관계를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기억 담론들은 그 담론 자체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구성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코드들의 교차로서 논의한 집단 기억의 의미 작용과도 연관된다. 집단 기억은 절대적인 가치나 실체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상호작용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다. 따라서 집단 기억의 재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소모적인 관점에서 혹은 비관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사회가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집단 기억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그 생산의 과정에 있어서 해당 사회의 문화적 관습과 제도적 이해관계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중들의 수용 및 소비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단일한 해석과 비판이 아니라, 국내 외적 맥락 속에서 그 자체가 다양한 세력들의 경합과 소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그러한 기억들은 특정한 기억들과 통합되기도 하며, 저항하기도 한다. 기억은 국면적인 개념인 것이다.

17) Olick, J. K., 앞의 책, 26~27쪽.

4. 기억을 통한 문화정체성의 표상과 그 가능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영역에서 집단 기억이 활용된다는 점은 대중들과 우리 사회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맥락이 과거에 대한 의미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정체성의 문제는 ‘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과거에 천착될 수밖에 없으며, 기억의 문제를 동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본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체성의 근간이나 정체성의 형성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보다는 현재 문화콘텐츠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체성의 표상에 대한 지형도 자체가 과거의존적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2015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의해 기억되는 해당 ‘과거’의 시기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의 재현이 현재에서 소비되는 모습을 넘어 오히려 과거가 현재를 압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향수 문화, 복고 문화와 같이 ‘캐주얼’한 일상의 모습들 뿐 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과 같은 거대 담론의 영역에서도 과거에 대한 자본화되고 권력화 된 집단 기억이 중심에 서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모습은 집단 기억이 다양한 제도 속에서 객관화된 문화적 실천으로 구축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것이 활용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여러 지점에서 계속해서 생산되며, 동시에 대중들은 그러한 기억들의 소비할 뿐 만 아니라 찬양한다. 즉 문화 정체성의 모습 그 자체가 과거일변도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특수한 기억들은 물론이고, 과거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은 닫히고 만다. 현재의 일상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과거의존적 담론들은 특정한 집단 기억에 대한 주목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배 기억으로서 집단 기억만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뿐, 기억 개념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가능성들은 제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 과거를 현재화하는 또 다른 방법인 ‘역

사'쓰기와는 차이가 있다. 역사의 기능이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기억은 사고의 내용이 과거일지라도 현재 속에서 생각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이다.¹⁸⁾ 역사는 항상 목적이 전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내러티브를 강조하며, 모두가 역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이와 달리 기억은 기억하는 주체가 분명함과 동시에 그 주체는 복수로 나타난다. 여기서 복수라 함은 기억의 주체가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집단 혹은 집단들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역사 이전에 기억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기억에 의해 특정한 역사가 구축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역사 또한 여러 기억들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권위는 기억 개념에 의해서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역사(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¹⁹⁾와 같은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할 뿐 만 아니라, 실증적, 전문적, 아카데미(학문적) 지향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직관적, 일상적, 대중적 관점으로서의 기억 개념의 유용성과도 관계된다. 기억은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나는 삶의 과정인 것이다. 기억의 이러한 모습과 연관하여 보면, 집단 기억에 의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과거의존적 문화콘텐츠의 지형도는 정체성의 참조 지점이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가 된다. 현재 문화콘텐츠가 과거의존적이라 함은 과거를 통해 대중들과 우리 사회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과거찾기'이며, 그 방법으로 기억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박제화 되고 대중들과 유리된 고정 불변한 진리로서의 역사쓰기 혹은 역사적 텍스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유희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의미화 할 수 있는 '기억하기'라는 전략을 활용하고

18) Lotman, 앞의 책, 398쪽.

19) Jenkins, K., *Re-Thinking History*. 1991, 최용찬 옮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해안, 1999.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더 많은 문화콘텐츠에 의해 계속해서 집단 기억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사회적 실천과 담론들에 의해 문화정체성의 문제가 공유될 것이고, 문화콘텐츠가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집단 기억의 문화콘텐츠 활용이 내포하는 시대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과거를 현재화하는 인식의 범주가 기존의 역사가 아닌 기억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과 그 방법 또한 제도화 된 역사학이 아닌 대중 상품인 문화콘텐츠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쓰기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문화콘텐츠가 가지는 가능성이다.

V. 나오는 글 : 차가운 기억을 위하여

앞서 다루었던 논의들은 아스만 부부의 관점에서와 같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제이자 그 재현으로 보면 ‘문화적 기억’으로, 피에르 노라의 관점에서와 같이 다양한 기억들의 재현과 역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억의 흔적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억의 터’로, 푸코나 대중 기억 연구회의 관점에서와 같이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정치적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 기억’으로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집단 기억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의 지형을 추적함과 동시에 집단 기억과 문화콘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문화기호학적 차원에서 살펴 본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 기억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며 그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논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 논문은 집단 기억에 대해 단일한 내용이나 형식을 가지고 재현되지도 않으며, 그 의미 구성 방식 또한 단순하게 읽혀지지도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였

다. 그리고 집단 기억의 구체적인 현시화인 문화콘텐츠 또한 그러한 관점을 공유하여 구조화되고 있으며, 단지 유희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집단 기억과 문화콘텐츠의 관계를 집단 기억이 문화콘텐츠의 소재로서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우리 사회의 상징체계와 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병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억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시적인 ‘역사적’ 사건들 뿐 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일련의 크고 작은 재난이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행위 등에 대한 논의의 문제에서도 기억 개념이 동원된다. 그러나 기억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정작 기억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 동시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기억해야만하는 당위성에 매몰되어, 기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공유하여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망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논의와 연관하여, 차가운 기억(cold memory)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차가운 기억이란 일종의 메타포로서, 현재의 기억 열풍에서 나타나고 있는 뜨거운 기억(hot memory)와 달리 기억의 윤리성을 염두에 둔 기억을 말한다. 현재의 뜨거운 기억은 기억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행위는 반드시 재현되어 사회적 담론의 위계 속에서 구성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차가운 기억은 오히려 담론적 실천을 거부하면서도 기억의 효과와 그 윤리적 측면을 염두에 두는 기억을 말한다. 차가운 기억은 그것의 구체적 모습이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현재의 뜨거운 기억의 열풍을 좀 ‘식혀주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기억 대상을 대상으로서만 혹은 사건으로서만 물화시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

당 과거의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억한다는 것이 과거 극복의 최선일 것이라는 무조건적 신봉도 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기억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차가운 기억은 기억 대상과 기억 주체라는 이분법에 함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억 행위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기억들은 의도하였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간에 정치적, 경제적 담론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들 간의 갈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손실과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물론 문화라는 개념은 다양한 담론들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내적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힘과 작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차가운 기억의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집단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를 둘러싼 능동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가치의 고양을 위한 의미를 성찰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러하다.

문화기호학의 관점에서 기억은 내용이자 방법으로 가치를 가진다. 동시에 사회는 점점 기억할 내용도 많아지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들은 기억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소통의 장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운찬, 『현대 기호학과 문화 분석』, 열린책들, 2005.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태지호, 「공간형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_____,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한 사회적 기억 제도로서의 영상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6권 4호, 한국방송학회, 2012, 431~471쪽.
- _____, 「<독립기념관>에 나타난 '독립'의 기억과 그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2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145~177쪽.
- Adorno, T. W.,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홍승용 옮김, 1997.
- Barthes, R., 『S/Z』,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6.
- Foucault, M., Film and Popular Memory, *Radical Philosophy*, Vol.5, No.11, 1975, pp.24~29.
- Halbwachs, M., *La topographie légendaire des évangiles en terre sainte: Etude de mémoire collective; Les cadres sociaux de la mémoire*, Coser, L. A. (Trans.), *On Collective Mem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Original work published 1941, 1952).
- Jenkins, K.,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최용찬 옮김, 해안, 1999.
- Lacapa, D.,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Lotman, Y. M.,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008.
- _____, 『문화기호학』, 유재천 옮김, 문예출판사, 1998.
- Olick, J. K.,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 옥당, 2011.
- Rapaille, C., 『컬처코드』, 김상철·김정수 옮김, 리더스북, 2007.
- Schwartz, B.,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braham Lincoln in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1, No.5, 1996, pp.908~927.
- Tambling, J., 『서사학과 이데올로기』, 이호 옮김, 예림기획, 2000.

A cultural semiotic study on the collective memory represented in cultural contents

Tae, Ji-Ho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f the way of how collective memory is realized through cultural contents and its social implications to us.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project, this study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memory and identity, and meaning of cultural representation. And this study examined an applicative aspect of collective memory through the land based contents and the visual contents.

As a result of research through this process, cultural contents is presented the shape of memory industry, and had various signification forms. And cultural contents is understood as a field of a contest and communication of collective memory. Also it have a possibility of alternative history.

This dissertation realizes the state of the collective memory reproduced through cultural contents as a hot memory, and suggests a cold memory as alternative. Consequently, a cold memory is concept about the ethicality of memory.

Key Words: collective memory, cultural contents, representation, cultural semiotics, identity

투고일 : 2015. 04. 30. / 심사일 : 2015. 05. 10. / 심사완료일 : 2015. 05. 25.